

# 해 외 출 장 계 획 서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OECD 제 158차 농업위원회(COAG) 예산 심의 (PWB)회의 참석

## 1. 출장목적 :

- OECD 제 158차 농업위원회(COAG) 예산 심의(PWB)회의 참석
  - 회의참석(2012. 05. 14~16) 및 각 의제별 우리 정부 입장 제출 등
- 2013-14 예산 및 작업계획 (PWB) 토론 및 결정
  -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2년간 수행하게 될 주요 연구과제 결정
- 인도네시아의 농업정책 검토 및 보고
  - 개도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농업정책 평가 결과 보고

## 2.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 출장자: 이대섭 연구위원
- 출장기간

| 출장자 | 출장기간                      |
|-----|---------------------------|
| 이대섭 | 2012. 5.13 ~ 5.17 (3박 5일) |

- 출장지: 프랑스 파리 OECD Conference Center

## 3. 출장 일정

| 일 시       | 장소                     | 내용           | 비고    |
|-----------|------------------------|--------------|-------|
| 5월 13일(일) | 인천 → 파리                | 출발, 도착       | 1박 1일 |
| 5월 14일(월) | OECD Conference Centre | PWB 회의참석     | 2박 2일 |
| 5월 15일(화) | OECD Conference Centre | PWB 회의참석     | 2박 3일 |
| 5월 16일(수) | OECD Conference Centre | PWB 회의참석, 귀국 | 3박 4일 |
| 5월 17일(목) | 파리 → 인천                | 귀국           | 3박 5일 |

#### 4. 주요 내용

I. 회의명 : OECD 제158차 농업위원회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2.5.14~16일, OECD 본부

III. 주관기관 : OECD 농업위원회

V. 핵심요지 : 최근 정책 환경을 토대로 2013~2014년 작업반 활동을 결정할 중점과제(Core intermediate outcome results) 및 선택과제(Choice)의 최종 승인 논의

##### ○ 선정과제

- 구체적 주제로 농식품정책(Food and Agricultural Policy), 농식품, 무역 및 개발(Agro-food, Trade and Development), 농수산 지속가능성(Agriculture and Fisheries Sustainability) 분야 등의 광범위한 영역 선정

#### VI. 관찰 및 평가/건의 :

##### ○ 농정평가, 식량안보, 기후변화, 국제개발협력 등이 핵심 논의 주제

- 회원국들은 농정평가(M&E), 식량안보,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특히, 식량안보와 개발협력의 연계강화를 주요 이슈로 논의.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은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이 상이 하였으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공조 강화에는 의견을 같이함.
- 특히, 일본이 식량안보와 관련된 위험관리 과제를 제안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내 식량안보와 관련된 논의가 향후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식량안보와 관련된 OECD 농업위원회 세부 작업반 활동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국제시장 구조 및 유통과정 분석 등 실질적인 무역거래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APM 회의를 활용, 순수입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
- 2년 단위로 개최되는 OECD 농업위원회 예산심의 및 주요 과제 선정(PWB)을 위한 회의는 향후 2년 동안 세부 작업반 활동을 총괄하는 회

의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특히 APM의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관심이 있는 주요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

## VII. 상세내용 :

### 1. 농업위원회 총회

#### 가. 농업위원회 2013-14 사업예산안(PWB) 토론 및 승인

##### (1) 1차 토론 (5.14, 오전)

- 사무국은 농업위원회의 2013-14 사업예산안의 핵심영역(core)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요청함
  - 노르웨이: 기후변화과제와 농산물 시장관련 과제를 지지함.
  - 영국: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M&E)에 관련된 과제를 지지하며, 연간 보고서로 발간되어야 함을 강조, 또한 축산부문의 확률모형구축 제안.
  - 캐나다: M&E, 농업부문 혁신관련 과제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제를 지지함.
  - 미국: 기후변화 부분에서 파급영향감소와 기후변화 적응관련된 분석이 같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
  - EU: 전반적으로 의장단의 과제선정을 지지하며, 선택적 과제로 지하수 관련 과제를 지지함.
  - 핀란드: 중점과제 및 선택과제를 동시에 논의하기 원하며, 예산배분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요청하며 기후변화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함.
  - 호주: 무역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를 지지하며 구체적으로 축산업과 연계된 분석을 지지함.
  - 독일: M&E 및 기후변화 관련 과제를 지지하나 기후변화 과제 중 파급 영향완화 부분보다 적응 방안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
  - 프랑스: M&E 및 개발관련 과제를 중점 지원해야 함을 강조. 또한 미시경제적 접근은 중요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지원 과제 선정을 요청. 또한 AGLINK를 사용하여 시장의 영향을 분석해야하며, 수출제한에 대한 과제는 수출부분에 집중하고 수입부분은 제외하자 요청. 더불어 식량안보와 관련된 과제는 DAC에서 추진하는게 적합하다 주장. 지하수 및 지표수도 같이 연구하자 주장.

- 뉴질랜드: 농가단위로 분석하는 과제를 지지하며 음식물 쓰레기 및 손실과제를 지지함. 또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FAO와 협력을 강화해야하며, AGLINK-COSIMO 모형을 활성화하여 영향분석을 해야함을 강조. 현재 Doha 라운드가 지연되고 있으나 OECD 농업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분석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원하고, 녹색성장은 고용 창출, 기술개발과 건강식품 개발 등이 집중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
- 오스트리아: 음식물 쓰레기 및 손실에 대한 과제를 지지함.
- 스위스: 일본의 제안서를 지지하며 특히 M&E와 식량안보가 연계된 내용이 중점 논의되길 요청하고, 기타 식량 안정성 문제가 논의되길 요청. 하지만 OECD가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및 손실에 대한 비교우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
- 에스토니아: PWB에서 논의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과제는 지지하지만 포괄적 분야에 대해 논의되길 원함. 또한 예산의 50%는 OECD 특성상 M&E로 배분되어야 하며 식량안보와 관련된 과제는 기타 국제기구 및 OECD 위원회와의 중복성을 파악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AGLINK와 기타 모형의 유지 비용이 과다 책정되었다 판단하고 있음.
- 스페인: 중점과제(CORE)는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구성되었다 판단하고 M&E와 전망(Outlook) 부분을 특별히 지지함. 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자 요청하고, 식량안보 분야는 FAO와의 중복성을 피해야 함을 강조.
- 스웨덴: 녹색성장 분야에서 농가가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해야 하는 문제도 거론해야 함을 주장, 지하수분야가 중점과제로 합당하면 수자원의 가용성문제도 중점과제로 선정되어야 함을 주장.
- 포르투갈: 일반적으로 과제구성은 지지하며, 우선과제로 M&E, 위험관리, 식품채널 네트워크, 녹색성장, 미국과 동일하게 기후변화문제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자 제안. 특히 식품채널 네트워크는 민간표준(Private standard)를 중점과제와 선택과제를 연결해서 추진하자 제안하고 다자와 양자협정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주장하며, 개발협력과제와 농업정책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과제를 추진해야 하며, 기후변화분야의 과제는 중복성을 피해야 함을 주장
- 덴마크: 전반적인 중점과제 구성은 지지하며, 중점과제는 연간 보고서로 발간해야하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논의하자 제안
- 멕시코: 위험관리 과제는 지지하며, 특히 대재난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지지함.

- 벨기에: M&E를 집중하여 추진하고 PSE/GSSE의 측정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또한 생산성측면의 연구가 집중 추진되는거보다 소비자 행동,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여 추진하자 제안. 식량안보 분야는 중복성을 회피하는 방안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 ○ 우리측 발언

- 위험관리와 식량안보를 연계한 일본의 연구과제 제안을 지지하며, 이는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회원국들의 식량안보 위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추가적으로 선택영역(choice)의 연구과제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 발표가 이루어짐

#### ○ 우리측 발언

- 선택과제는 OECD의 주요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우리측은 M&E와 관련된 과제를 추천함. 1) 농업부문의 이원성과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전략과제와, 2) 농가단위의 생산성 촉진 요소에 관련한 과제, 3) 또한 OECD전망에 관한 농산물 가격형성과 관련된 과제는 연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도출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제안.

- 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에 소요되어 연구를 위한 비용이 부족하므로, 국가별 농정평가, 식량안보에 관한 지역별 접근 등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이 제공되기를 희망함
- 2011년 글로벌포럼 예산이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이 중단되었지만 정책 환경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결정.
- BRICs 국가에 대한 협력 강화와 연구과제의 효율성 증진을 제고하여 기타 기관과의 과제의 중복성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2) 2차 토론 (5.15, 오후)

- 사무국은 1차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예산안의 수정본을 제시(붙임 1 참조) 하였고, 회원국들의 승인 여부를 문의함

- 미국, 캐나다 및 다수의 유럽국가들이 민간표준과 무역에 관한 연구과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호주, 캐나다 등의 일부 회원국들은 식량안보에 관한 일본의 제안이 이루어진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일본 대표단은 이미 서면의견(‘11.12.25일)을 제시한 사안이지만,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필요성을 강조한 것임을 설명함
- 미국 대표단은 면(cotton)에 관한 AGLINK 모델의 개발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연구과제가 재조정될 수 있기를 요청함

### (3) 3차 토론 (5.15, 오후)

- 사무국은 2차 토론 결과를 반영한 사업예산안의 재수정본(붙임 2 참조)을 제시하였음
- 2차 토론에서 제시된 회원국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든 연구과제들이 포함되도록 하였음을 강조함
-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재수정된 사업예산안에 만족하였으나, 일본 등 소수 회원국은 사업예산안의 표현에 대하여 경미한 수정을 요청함

### (4) 4차 토론 (5.16, 오전)

- 사무국은 전일 회의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른 전체 사업예산안 문서의 최종본(붙임 3 참조)을 회람하고 회원국들의 승인을 요청함
- 프랑스는 민간표준 관련 연구과제의 내용 중 일부 표현(95단락 중 ‘From the government point of view~’)이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사무국은 연구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며, 외부로 공개되지 않음을 이유로 수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의견이 동의함

### (5)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Part II Programme) 사업예산안 진행상황 보고

- Codes&Schemes와 공동연구프로그램(CRP)의 의장들은 사무국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함
- 특히 공동연구프로그램의 경우 프랑스의 탈퇴로 인하여 사업예산안 확정이 지연되어 운영위원회(6.1일 예정) 이후 결정될 예정임을 알림

## 나. 기타사항

- 농업무역국 국장(Ken Ash)은 최근 농어위원회의 주요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함
  - 농업장관회의(2010년) 이후 가격변동성관련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발적 기여금 확충과 개도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글로벌 농업포럼을 지속적 개최
  - 또한 국제기구간 연구작업이 중복되는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국제기구 사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FAO나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식량안보나 빈곤감소 등의 개발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음
- OECD의 개발전략(Development Strategy)에 관한 사무차장의 설명이 있었음.
  - DAC는 농업위원회가 추진하는 과제에서 식량안보 관련된 과제를 적극 지지하며, 수원국 개발전략을 고려한 우선과제를 추진하길 희망함.
  - 식량안보와 개발협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국별 파크너쉽 구축 및 국제기구와의 수평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토대로 향후 추진되는 개발협력 관련 사업의 효과성 제고
  - 또한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고 DAC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효과성 제고
- Rio+20회의에 기여하기 위한 OECD의 녹색성장 전략에 관한 설명이 있었음
  - 2050 환경전망 보고서 발간 및 녹색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연구, 녹색성장관련 각종 연구들이 진행 중이며, 특히 개도국 자체의 역량강화와 선진국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임을 설명함
- 사무국은 글로벌 농업포럼이 11.26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포럼에서는 개발원조위원회(DAC)와 협력 하에 개도국에서의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일관성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임을 설명함
- 멕시코 대표단은 농업부문의 혁신에 관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민간

투자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G20농업차관회의(5.17~18, 멕시코 시티)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향후 정상회의에 보고될 것임을 설명함

- 사무국은 5.23~24일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제도 및 기회를 주제로 OECD 각료급위원회(MCM)가 개최될 예정이며, OECD의 신개발 전략, 직업기술전략, 여성경제능력 강화 등에 대한 OECD의 프로젝트가 채택될 예정임을 설명함

## 2. G20 회원국 초청 세션

### 가. 인도네시아 농업정책 평가 보고 및 토론

- 인도네시아의 농업정책 평가 결과에 대한 사무국의 발표(발표자료는 붙임 4 참고)가 있었으며, 이에 관한 인도네시아 농업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진행됨
- 농업정책에 대한 외부 평가는 최초로 시행된 것이며, 향후 정책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최근 농업정책은 ①쌀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요곡물의 자급, ②농작물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과 수출능력 배양, ③농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OECD가 개선을 권고한 ‘저소득층을 위한 미곡 프로그램(RASKIN)’은 보조금 보다는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성격이 강하며, 현금지원의 경우 보조금이 다른 영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다른 방식을 택하기 어려움을 설명함

### ○ 우리측 발언

-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환영하며, 인도네시아 농업정책의 포괄적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을 해주신 의장단의 노고를 치하함.
- 인도네시아의 주요 중장기 농업정책을 주곡(쌀)의 자급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한국의 경험은 기술개발의 결과 다수확품종 개발을 통해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였음.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술개발과 더불어 쌀에 대한 경작면적을 확대할 잠재력이 충분하며, 경작지 확대 계획, 즉, 파푸아(Papua)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파푸아 지역 개발 정책에 대해 브리핑



요청.

- 인도네시아측은 쌀 자급 달성의 목표를 2015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경작 면적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파푸아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원주민 문화의 고유성 및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지역 사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나. 농업생산성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 주요내용 설명 및 토론

- 사무국은 OECD, FAO 등 12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작업하여 G20 농업차관회의에 보고할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과 소농의 소득격차 해소'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함 (발표자료는 붙임 5 참고)
- 주요 논의 주제는 1) 실현가능한 정책환경 조성, 2) 혁신시스템 개선, 3) 소농의 생산성 향상과 대농과의 격차 감소 등으로 선정
- 러시아 대표단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기존의 의제와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개도국으로서 러시아 농업에서도 소농의 문제가 중요함을 설명함

#### 다. 러시아의 OECD 가입 관련 농업위원회 심사 일정 논의

- OECD 법률국(Legal Directorate)에서 러시아의 OECD 가입을 위한 심사 진행 상황을 설명함
- 러시아는 WTO 가입('11.12월) 이후 OECD 가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G20의장국인 2013년에 OECD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위원회 별로 2012년 러시아의 가입심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위원회 사무국 및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농업정책 검토를 위한 일정을 협의함
- 사무국은 러시아 농업정책에 관한 리뷰(1998년)가 이루어진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우며, 새롭게 농업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함
- 다만 러시아는 격년으로 시행되는 개도국대상 농업정책평가 대상국 중의 하나이므로, 2011년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제안한 검토방식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함
-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 회원국은 WTO/SPS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사무국은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음에 대하여 양해를 구함